

歷 史 紀 行

## 황망한 대륙에 서린 한족(韓族)의 통한(上)

정현택/자유기고가

나의 집 낡고 오래된 누옥(陋屋), 나의 조그만 서실(書室)에는 역시 골동품같은 한말들이 나무통이 있다.

몇년전에 나의 고택 고방(古宅 庫房)에서 가져온 황고(皇考)께서 농사용으로 쓰시던 나무로 된 용기였다.

손잡이도 떨어져 나가고 나무통을 엮어 때는 쇠조임새마저 못이 빠져 덜렁거리는 낡은 폐물이었다.

이것을 서울로 가져와 갈고 닦아서 때를 빼고 니스칠을 하여 윤기나게 만들고는 바깥표면에 한 싯귀를 각자(刻字)하여 가로되 “직상청운, 진의천인, 탁족만리-봉황산성(直上靑雲, 振衣千仞, 濯足萬里-鳳凰山城)”이라 하고는 신주모시듯 탁자모서리에 두고 각종 우편물이나 도착되는 통신 기타 국내외신문등 인쇄물, 영수증등을 무질서하게 던져 넣어 보관해왔다.

家兒들이 귀신난다고 보기싫어하며 일러왈 소(牛)죽통이라고 부른다.

나의 소중한 이 서류보관함에 각자한 싯귀는 중국 요령성(랴오닝성)의 동남쪽 우

리나라 신의주와의 접경지역에 가까운 지명 즉 봉황시 가까이에 있는 봉황산성입구의 큰 돌에 새겨진 중국인의 싯귀다.

우리나라 압록강 의주 통군정에서 직선거리로 멀어봐야 고작 50Km에 불과한 이 봉황산성이 그 옛날 고구려 동명성왕이 개국했던 성지(聖址)이고 구전에 의하면 또한 안시성이라고도 하며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당나라의 설인귀가 대접전을 벌였던 고전장(古戰場)이다.

특히 조선조 중기까지만 해도 조선의 압록강변 강역이 사실상 이곳 봉성시까지이고 이곳에 책문(柵門), 요새말로 국경검문소겸 세관으로써 중국쪽에서도 일정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고려성 고려역 고려춘등 지명이 있었으며 이를 표기한 유인물도 지금에도 쉽게 볼수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의도적으로 이런 고려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지명이나 기타 금석문 등은 깡그리 없앴다라고 현지의 촌로들은 증언하였다.

조선중기 인조반정 이후 청나라지배하에

들어갔을때 이 일대의 만주족 누르하치가 흥기한 성역이라 하여 신성불가침구역을 설정하여 曰 “봉금지대(封禁地帶)”라고 해서 당시 이 일대 기름진 평원(平原)에 이주해 살던 조선족들을 모두 평안도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이 국경선 봉황산성일대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서 집안시로 향하는 우리일행의 가슴에는 다 말없이 만고수(萬古愁)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었다.

이 나의 선친께서 애지중지하시던 나무 통 표면에 새긴 식귀는 지금도 봉황산성 입구에 확연히 돌에새겨 그곳이 그들의 고성(古城)인양 또 당태종이 고구려를 패전시킨 전승지로 과시하면서 이곳을 찾는 고려인의 후손인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그 뜻은 이렇다.

“곧바로 푸른 구름(해발 836.4m)위로 부상하여, 옷자락을 날리며 천길 아래를(요동벌) 굽어보며, 만리에 흐르는 강물(압록강, 요하등)에 발을 씻는다.” 라는 뜻인데 사실 인즉 우리 조상 즉 고구려인의 웅혼(雄渾)한 기상을 표현한 식귀라고 여겨진다.

누가 짓고 썼는지 모르기만 확실한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강역, 잠시 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기상임이 틀림없다.

중국인민들 정확히 표현해서 중국漢族들이 지금의 신강성 위그루인들과 서장성 티벳인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하화(夏華)문명의 큰 틀속에 융합시키기 위해서 말이 좋아서 서북공정(西北工程)이라는 역사연구 프로젝트를 했고 이어서 공식적으로는 1999년 중국변강지구역사 및 사회연구 동북공작팀이 성립되고 이를 확대개편하여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동북공정(東北工程)Team이 2002년 2월 28일에 발족된 셈이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도 강대국 열강의 각축(角逐)속에서 우리말, 우리글, 우리풍속, 우리문화를 용케도 5천여년간 면연히 전승해준 고맙고도 위대한 우리조상들이지만, 어찌다가 요동벌 옥야 수천리를 포기하고 왜 한반도 남쪽 조그만 반도로 이주했는지 참으로 나같은 별볼일 없는 민초이나 그 역사적 애석함과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광개토대왕의 그 드넓은 강토와 동북아를 재패했던 그 영웅의 기상을 접어두고 왜 고구려 장수왕은 AD427년 평양으로 천도했스며, 왜 보장왕은 내정을 소홀히 하여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게 패전을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만주벌의 강역을 잃게 되었을까?

또 고려때 묘청의 평양천도론을 왜 실현하지 못했을까?

고려말 최영장군의 요동정벌을 왜 포기했을까?

또 조선조때 광해군과 대북의 영수 내암정인홍선생이 군신합작하여 호시탐탐 청의 허점을 노리며 만주진출을 꾀하다가 인조반정으로 물거품이 되었던일, 효종과 이완대장이 그렇게도 절취부심하던 북벌(北伐)은 왜 남가일몽(南柯一夢)이 되었을까?

중국의 산둥성보다 작은 이 조그마한 반도에서 서로가 찌지고 부고 못잡아먹어 아웅거리는 용졸하고 치사한 약소민족이 된 것이 우리조상들의 기국(器局)이 협소해서였을까? 아니면 열강의 각축에서 불가피하게 밀려서 쇠락한 역사에 산물인가? 중국

에 당하고, 몽고족에 당하고, 만주호족에 당하고, 왜인에 당하고, 서구양인들에게 당한 우리의 얼룩진 피침(被侵)의 역사장면들!

누가 일찍이 말한되로 우리의 국운은 天運인가! 時運인가! .....

오늘도 개나리 담보짐에 표표히 추풍에 옷깃을 날리며 중국 천진행 여객선에 올라 따스한 서해의 가을햇빛을 받으며 인천 갑문을 뱃머리를 뚫는다.

각설(却說)하고, 사실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또 세계 몇째라는 군사비 예산등등 해서 때로는 경외스럽고 때로는 두려우며 때로는 알뜰기도 한 일본인들의 국제적 대두가 또다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대개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본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누구는 한잔술에 취기에 젖어 폄설(貶說)하여 가로되 “일본은 장차 미국이나 중국의 손오공 손바닥에 놀아날 島國임에 불과하다.” 해서 나 역시 일본을 수차 주유해보아도 역시 누가 말하드시 “일본은 조선(한국)이더라” 일본현대문화는 서구문화의 Copy문화, 트랜지스터 라디오行商 문화이고, 고대와 중세문화는 우리조선문화가 전파해준 亞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전차로 어쩐지 일본탐방은 산뜻하고 깨끗하고 날름하고 다소간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은 주지만, 중후장대(重厚長大)하고 마치 큰 가마솥에 황소를 고아낸 곰국같은 중국문화, 즉 우리문화의 원류(源流)의 소재를 찾아 떠나는 불거리로는 중국대륙을

당하지 못한다.

해서 나는 시도때도 없이 마음 내키는 되로 훗훗 중국대륙을 주유해보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서 단군개국 이래 5천년동안 대륙(만주포함)의 문화전수(文化傳受)와 더불어 그들과의 투쟁의 역사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애(悲哀)와 통한(痛恨)때문에 나는 종종 다음의 홍유석학(鴻儒碩學)두분의 글을 애독한다.

즉 첫째는 민족史家 단재 신채호선생의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한이 넘치는 섬뜩한 글이다. 한글세대인 요즘의 젊은 독자들은 다소 난해한 문장이나 양식있는 후진세대라면 꼭 음미해야할 구절이다.

단재선생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이른 글귀가 있다.

“古記, 古史記등을 참고하면 조선문화의 원시-수두의 발원이 거의 송화강가의 합이빈(만주 하얼빈) 부근인데 합이빈은 그 고대의 부여(夫餘)이다. 그러니 송화강은 조선족이 처음으로 근거한 ‘아리라’요, 합이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야지(野地) ‘불’이요, 그 이외의 모든 부여, 부리등등은 연대를 따라 차례로 개척된 야지-불이다.”

위 문장에서 “아리”란 오늘날의 江을 말함이다.

또 단재 가로되 고기에 이르기를 “단군왕검이 하우(夏禹)를 도산(塗山)에서 만났다”고 하였고, 또 오월춘추(吳越春秋)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어서 “당요(唐堯)때에 9년간 홍수가 저서 당요가 하우에게 명하여 이를 다스리라 하였다.